

다니엘, 유니게 선교편지

2017년 8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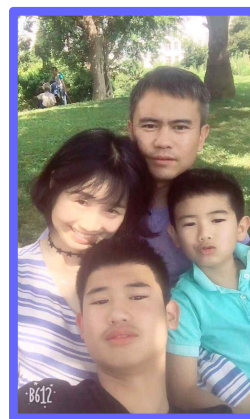
항상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지인 가정과의 교제

가정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평안의사람' 만나기를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가정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청'이의 가족은 류온이의 유치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의 만남과 교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그 가정도 흔쾌히 좋다고 하여서 매주 정기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선교사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청청이 엄마는 우리의 요청으로 현지어 성경을 가지고 현지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애기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청청이 아빠와 현지 지역과 뉴스, 역사, 문화를 소재삼아 대화를 하고 있고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복음에 열려있고 예배에도 참석하는 이 가정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평안의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청청이네 가족)

소수민족 신학교 & 단기선교팀 인도

지난 8월 7일부터 한 주간 분원교회 단기선교팀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팀을 인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난해에 소수민족 청년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 올해에도 다시 오셨습니다.

소수민족 신학교는 시내에서 3시간정도 떨어져 있는 산골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신학교입니다. 산골 오지에 살면서 교육의 혜택에서 밀려나 있으면서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청년들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허름한 주택에 진행되는 학교지만 청년들은 신앙을 키우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모델삼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을 만날 때마다 도전을 받고 청년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학생들의 찬양)



(단기팀과의 교제 시간)

단기팀들은 이 학교 청년들을 시내로 초청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시내를 간다는 소식에 무척 설레여서 매일 손꼽아 이날을 기다렸던 가 봅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옷과 신발을 챙겨 신고 머리도 단정하게 한 모습이 무척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청년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잘 통하는 오랜 친구처럼 기뻐했습니다. 교회 팀들과 조를 편성하여 놀이동산, 동물원, 수영장 등을 다니는 내내 어찌나 행복하게 웃는지 서로서로 힐링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기팀이 돌아갈 때에는 서로가 어찌나 아쉬워하던지 보고 있는 저조차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추억과 기쁨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단기팀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리서치와 또 다른 사역 계획

시간을 정해두고 소수민족들이 있는 지역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리서치할 지역을 정하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합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봐야할 곳을 보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덕분에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던 정보이상의 것을 얻고 오게 됩니다. 리서치 할 마다 매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욱 깨닫게 되어 은혜롭습니다.

‘순**’은 1시간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회족(무슬림) 집중지역입니다. 하루정도 걸어서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가옥들 사이사이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비교적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꽤 큰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원을 중심으로 회족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개의 사원에서는 이맘(종교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족들은 아라비아 상인의 후예답게 주로 상업에 종사하며 중국 대륙 각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일컫는 ‘회교(回教)’라는 말도 회족(回族)들이 믿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한자 ‘회(回)’는 이슬람 성지 메카에 있는 사각형의 신성한 검은 돌과 그 돌 주위를 빙빙도는 신도들을 상징합니다. 외견상으로 한족과 구별하기 어려운 외모를 가졌고 대화를 하면서 보면 명목상의 무슬림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개학하면 시내에서 다시 만나서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어서 인지 청년들은 다음 만남을 기대하였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동안에는 주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곳에서는 머물러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만나는 이들과 교제할 때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도 하여 마음이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선교회본부에서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재배치 상황을 보고 사역진행을 위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함께 이곳에서 사역할 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지 선교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선교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지교회와 젊은 지도자들에 대한 선교훈련의 필요성과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언어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음악, 전문기술 등을 포함하는 직업학교 형태의 선교신학교에 대한 사역전략도 논의되었습니다.

본부 스텝들이 돌아간 뒤에 저희들은 정기모임을 통해서 더욱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사역을 위한 기초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진행해야 할 때인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신대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유니게 선교사의 편지

청청이 엄마와 언어훈련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게될 성경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한국어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교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어야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기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쉬운 어린이 찬양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 깊이 있는 교재를 통해서 청청이네 가족이 깊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선교회본부에서 다녀 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음악학교를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육 뿐 아니라 음악의 전반적인 이론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점을 다니면서 책도 찾아보고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하시는 분에게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 현지에 적합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커리큘럼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교재도 만들 계획인데, 모든 것을 현지어로 만들어야 하고 또 편집까지 해야 해서 적잖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제목

1. 청청이 가정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쿤밍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을 위해서.
이 곳 에서 일들(소수민족 R학교, 음악커리큘럼 작성과 교재 편집)이 그 분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3.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